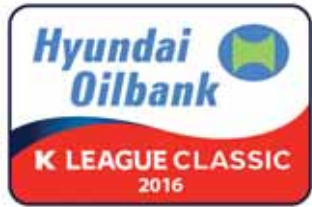


# 정조국 멀티골...해결사가 돌아왔다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  
수원FC전 17·18호 골  
광주FC 2-1 승리하며  
그룹 B 여유롭게 선두

광주 FC의 '해결사' 정조국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광주 FC가 1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스플릿 라운드 첫 라운드(34라운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정조국의 활약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보낸 광주(승점 44점)는 승점 42점의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 FC를 따돌리고 7-12위 팀으로 구성된 그룹 B의 선두자리에 올랐다. 자동 강등권에 놓여있는 최하위 수원 FC와의 승점은 11점 차가 됐다.

무릎 부상으로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지만 정조국의 골감각은 여전했다. 전반 4분 만에 정조국의 해결사 본능이 깨어났다. 페널티지역에서 패스를 받은 정조국이 상대 수비수 레이어의 반칙에 넘어졌다. 유니폼을 잡아당긴 레이어는 경고 카드를 받았고, 광주에는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자신이 만든 득점 기회에서 직접 키커로 나선 정조국은 수원 FC의 골키퍼 이창근을 완벽하게 속이고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전반 16분 프리킥 상황에서는 어렵게 골대를 맞히기도 하는 등 정조국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상무'를 알렸다.

앞에서 정조국이 공세를 벌이자 뒤에서는 골키퍼 윤보상이 철벽수비로 응수했다. 전반 34분 문전 결합과정에서 수원 FC의 블라단의 헤딩슛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윤보상의 손이 더 빨랐다.

전반 43분에는 정조국이 도움 기회를 맞았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골찬스를 노리던 정조국이 몸을 돌려 뒤에서 기다리던 김민혁에게 패스를 했다. 김민혁이 망설임 없이 슈팅을 날렸지만 어렵게 공은 골대 오른쪽을 맞고 튕겨나왔다.

후반 시작에도 정조국이 있었다. 시원한 슈팅으로 후반전을 연 정조국이 후반 19분 다시 한번 골 세라미니를 뚫었다. 광주 공격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수비수 이종민이 길패스로 오른쪽에서 공격을 준비하던 송승민에게 전달했다. 이어 송승민이 중앙에 있던 정조국에게 공을 넘겼고, 한 박자 호흡을 고른 정조국이 정확한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2-0을 만들었다.

하지만 승리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후반 33분 윤보상이 수원 FC 김민재의 기습 슈팅을 어렵게 쳐냈지만 어렵게 공이



무릎부상에서 복귀한 광주 FC의 정조국이 1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K리그 클래식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에서 그라운드를 뛰고 있다. 정조국은 복귀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광주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광주 FC 제공>

상대에 향했다. 수원 FC의 이승현이 흘러나온 공을 잡아 2-1로 추격을 했다.

이후 수원 FC의 공세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진땀을 흘린 광주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무려 6분이나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활발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풀어나간 김민혁이 두 번째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수적 열세 속에 좀처럼 주심의 휘슬이 울리지 않으면서 긴장감 남지는 시간이 흘러갔

다. 그리고 골키퍼 윤보상이 수원 FC의 브루스의 슈팅을 막아낸 뒤에야 겨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는 어렵게 2-1 승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정조국은 부상 복귀전에서 17호골

에 이어 18호골까지 연달아 쏘아올리면서 전날 14호골을 터트린 FC 서울의 아드리야노와의 격차를 4점 차로 벌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북 33경기 무패 마감 제주에 2-3 역전패

프로축구 선두 전북 현대가 제주 유나이티드에 일격을 당해 33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전북은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상위 스플릿 첫 라운드(34라운드)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 2-3으로 역전패했다.

18승 15무 만에 1패를 기록한 전북은 시즌 개막전부터 이어오던 무패 행진을 33경기에서 마감했다. 승점도 60(득점 62)에 머물러 FC서울(승점 60·득점60)의 추격을 받게 됐다. 전북은 팀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행위로 지난달 승점 9점이 깎인 바 있다.

제주는 김인수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오른 이후 가진 첫 경기에서 전북에 첫 패배를 안겼다. 15승 7무 12패(승점 52)로 3위를 지킨 제주는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꿈도 키웠다.

선제골은 전북이 뽑아냈다. 전반 44분 최철순의 크로스를 제주 김호준 골키퍼가 잡았다가 놓치는 사이 에두의 머리에 이은 이동국의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후반 5분 만에 제주 마르셀로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전북은 후반 9분 로페스와 이재성을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이어 후반 30분 이재성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다시 기회를 잡았지만 이동국이 이를 실축하면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전북은 곧바로 제주 안현범에 역전골을 허용했다. 전북은 포기하지 않고 제주를 몰아붙였다. 후반 37분 다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신형민이 대포알 같은 오른발 강슛으로 제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2분 뒤 제주이 광선의 패스를 받은 김호남에 결승골을 내주며 쓰러린 첫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 볼트 "내년 은퇴"

### 8월 런던 세계선수권 뒤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내년 8월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15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트는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내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전후한 시점에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볼트의 은퇴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볼트는 "은퇴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피곤한 일이다. 일단 쉬고 싶다"고 확답을 피했다.

은퇴 2개월을 앞둔 내년 6월에는 조국인 자메이카에서 고별전을 치른다. 그는 "레이서스 그랑프리에서 자메이카 팬들에게 현역 선수로서 특별한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리우올림픽 폐막 이후 화려한 파티를 하며 휴식을 취한 볼트는 다음 달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에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전인미답의 육상 단거리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의 위업을 이뤘다.

/연합뉴스

## 손흥민 교체 출전 동점골 기여

### 토트넘, WBA와 1-1 무승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이 토트넘의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탰다.

손흥민은 15일 영국 웨스트 브로미치 더 호손스에서 열린 EPL 8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와 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이던 후반 27분 교체 투입됐다.

A매치 두 경기를 비롯해 지난달 25일 미들즈브러전부터 17일 동안 총 5경기에 출전하는 등 강행군을 한 탓에 이날은 후반 그라운드를 밟았다. 손흥민은 9월 한달간 EPL 3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14일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0-1로 뒤지던 후반 43분 델리 알리의 동점 골에 기여했다.

토트넘은 후반 37분 웨스트 브로미치 나세르 샤텔리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6분 뒤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에게 패스했다. 에릭센은 다시 옆에 있던 델리 알리에게 이를 넘겼고, 알리가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5승 3무(승점 18)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지동원 듀오는 A매치 이후 첫 경기에서 나란히 선발 풀타임 출전했다.

두 선수는 15일 살게와 홈경기에 나와 공격을 주도했다. 지동원은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고, 구자철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다. 전반전에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두 선수는 후반전에선 몸이 풀린 듯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지동원은 후반 8분 왼쪽 측면 크로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후반 28분에는 상대 진영 앞에서 공을 빼앗아 슈팅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구자철은 후반 38분 중거리 슛을 시도하는 등 2선에서 활약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재미동포 엘리스 리 '어머니 나라'서 우승 농쳐

###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 연장서 카를로타 시간다에 패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첫 우승을 꿈꿨던 미국 동포 엘리스 리(한국 이름 이화현)가 18번홀(파5) 불운에 올랐다.

엘리스 리는 16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최종일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을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에 내줬다.

엘리스 리는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섰지만 초반 퍼팅 부진으로 시간다에게 5타차로 선두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다가 14번홀(파4) 더블보기, 16번홀(파4) 보기로 3타를 까먹자 엘리스 리의 퍼팅 감각이 살아나면서 다시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18번홀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연장전에 돌입한 엘리스 리는 18번홀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16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왼쪽)와 연장전까지 접전을 벌인 엘리스 리(미국)가 서로 끌어안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칩샷이 홀 바로 앞에 멈춰서면서 14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최다 타수차 역전승이다. /연합뉴스

최종일 5타차 열세를 따라잡아 우승한